

◆ A View on the Role of Managing Periodicals in Library

定期刊行物 管理의 韓國的 狀況

—그 強化와 改善을 위하여—

玄 圭 燮

(국립중앙도서관)

1. 問題의 所在

脫工業社會(Post-Industrial Society)를 指向하는 現代社會의 構造的 變換은 知識優先社會의 구현을 基本 패턴으로 看做한다. Fritz Machlup나 Danil Bell教授에 依하여 提起된 知識產業社會의 概念은 一양 학자간의 몇가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結局 知識產業群이 全體產業構造에 最優先階層을 占하고 있다는 간결한 定義부터 始作된다.¹⁾ 知識產業社會의 構現은 現代가 指向하는 理想型이며 未來像이기도 한 것이다. 이 社會의 基本인 知識產業은 大體로 7가지의 要素로 構成 되는데 이들은 全部 情報의 순환과 전달에 의하여 이 록되게 되는 것이다.²⁾

圖書館人의 생각은 앞으로 到來되는 이 知識產業社會에 있어서는 圖書館이야 말로 절대적인 존재가 될 것이며 基本的인 社會의 要素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쉽사리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知識產業社會의 基礎인 情報產業은 決코 圖書館의 獨占物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관적인 측면으로 전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世界各國에서 대두되고 있는 各種 Clearing house나 Infarmation Center는 근본적으로 그 目的과 機能에 있어서 도서관의 그것과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社會는 이를 도서관의 一종으로 보려 하지는 않는다.

이들의 特徵은 企業性(또는 產業性)과 微視的 情報

處理³⁾라 하겠다. 기업성이란 영리를 추구함을 거부하지 않은 점을 조금 과장하여 지적한 것이고 미시적 정보처리란 문헌정보에 대한 원리가 정보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정보단위(논문, 또는 보고서, 심지어 메모에 이르는 세분된 정보원)를 대상으로 전개됨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을 언급하여 두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제기된 문제가 바로 정기간행물의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微視的 情報處理란 圖書館이 圖書(Books)라는 物理的 單位로 이루어진 知識을 主要對象으로 하여 왔음에 反하여 정보의 가치라는 기준에 따른 個別의 情報(Information)를 주 대상으로 한 처리과정을 지칭한다. 正統的 圖書館學의 通念이 資料를 書圖와 非書圖 資料(Non Book Materials)로 大分하여 왔음에 比하여 정보과학은 高次文獻化 過程(Hisher Literalization)으로 자료를 大分한다. 정보산업의 자료대상은 물리적 형태를 완전히 가춘 도서나 비도서에 있지 아니 하고 자료의 情報源으로서의 重要度 區分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예비 보고서 (Pre-paper)나 Research Report, 또는 Memos가 중요한 資料가 되며 보다 基幹이 되는 情報源은 定期刊行物(Periodicals)인 것이다.

요즘 빈번히 引用되는 Richard H. Orr의 資料의 흐름에 대한 圖解는 傳統的인 圖書館의 資料概念과의 差를 뚜렷히 시련한다.

Type I에서 Type TV까지의 자료 구분은 根本的으로

1) Danil Bell [白根禮吉, 譯]. 知識文明의 構成, [The measurement of knowledge and technology]. 東京, ダイヤモンド社, 1969. p.1~10.

2) Fritz Machlup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knowledge in the U S Prenceton Univ, Press, 1962,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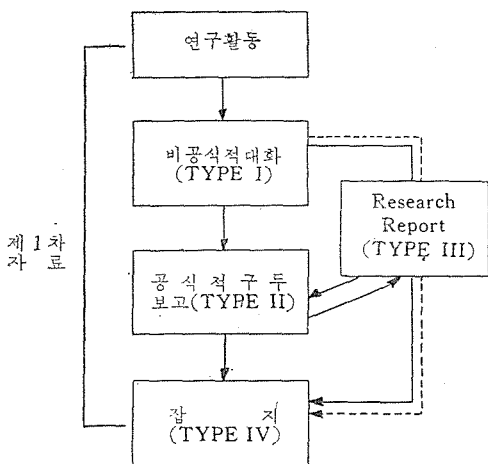
3) 미시적 정보처리란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 개념은 Bourne, Charles P.의 다음과 같은 定義에서 抽出한 것이다. File item is defined as smaller module as package of Information to be handle as a unit.

Broune은 도서관과 정보과학의 對面하고 있는 差異點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Certain fundamental problems occur in varying degree in handling nearly every file, and especially in handling the large files, regardless of the type of material in the file or the method of file organization.

BOURNE, Charles P. Methods of information handling. New York, John Wiley, 1963. p. 6-9.

表 (1) Orr의 정보유동표



로 자료에 접근하는 방향이 細分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다.⁴⁾ 또한 從來圖書館學에서 重要視하지 않았던 예비 보고서에 대하여 이를 確固한 概念으로 設定하고 있다는 差異點을 나타내어 준다.

또한 봉사업무의 초점에 있어서도 목록과 분류에 의한 도서의 목록편성보다는 論文(Articles)의 초록과 색인(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미시적 정보처리에 대한 社會의 태도는 情報의 提供이 다만 圖書館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要求는 專門적으로 細分化된 有効情報의 提供을 원하고 있다. 社會는 이러한 提供處가 어느것이던 어떤 組織이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狀態에서 과연 도서관은 앞으로 臺頭되는 社會의 發展의 構造에 있어 重要な 位置를 占할 수 있을 것인가. 筆者의 私見으로서는 悲觀的이다. 最少限 우리의 機能은 다른 產業群 또는 다른 階層의 組織에 의하여 감소될 위기에 있으며 社會의 裝置로서의 位置는 흔들릴 우려가 있다.⁵⁾

어찌하여 우리는 짙은 우려를 감안하여야 하였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도서관과 社會와의 相互作用과 圖書館學의 發展過程과 그 反作用등 雜多한 要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要因들 가운데의 하나로서, 간과할 수 없는 한 分野가 있다. 그것은 定期刊行物에 關한 研究의 缺餘이다.

定期刊行物에 對한 도서관의 態度는 거시적인 것이었다. 말하자면 定期刊行物에 內布되어 있는 情報의 分析과 抄錄 또는 索引보다는 缺本 없는 受入과 整理

그리고 製本된 單位의 회전과 관리가 重要的 課題였다. 結果적으로 圖書館에 있어서 定期刊行物은 圖書整理의 한 Process로 밖에는 認識되지 아니하였고 그 發展은 圖書資料라는 범주내에서만 研究되어 왔다. 바로 여기에 圖書館이 (本人이 말하는) 微視的 情報處理로부터 分離되는 Break point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定期刊行物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우리의 結果는 分明히 有効한 情報의 提供이라는 문제와 處方的 奉仕(prescription service)의 개념이 세워졌을 것이다.⁶⁾

우리는 지루하게 서술된 이 서론에서 너무도 커다란 課題를 論及하여 왔다. 事實 이러한 課題는 깊은 研究와 면밀한 分析이 必要的인 것이지 單편적인 착상으로 言及할 것은 못된다.

그러나 定期刊行物에 關한 研究가 分明히 情報의 概念에 接近하는 한 方法이 있으며 急激히 變化된 모든 資料에 對應할 수 있는 基礎的인 手段이 되었을 것임을 筆者는 確信한다.

이렇게 본다면 定期刊行物에 關한 圖書館의 態度는 좀더 진지하게 研究하는 風土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小論은 定期刊行物이 소외되어 왔던 圖書館의 風土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單편적인 몇개의 答변을 하려는데에 目的이 있다.

II. 現任의 狀況

定期刊行物의 管理狀況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不毛地帶타 하여도 과연 아니다. 그 端의인 證據는 우선 두가지만으로도 충분히 例證할 수 있다.

表 (2) 정기간행물 보유수통계 (1971년)

	학교수	국내정간물		국외정간물		총평균
		정간물수	평균	정간물수	평균	
대 학(교)	92	13,458	145	11,782	125	143종
초 급 대	44	543	12	294	6	
평균(종수)			78		65	

그 하나는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定期刊行物 種類이다. 表 (2)는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하여 조사

4) Richard H. Orr. "The matalolism of new scientific information" Amr. Documentation 12 (1) p. 5~19.

5) Broune, Charls P.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Libraries have no monopoly on storage and retrieval problems' BROUNE, Charles P. ibid. p. 6.

6) 처방적 봉사란 개념은Ulveling, Ralph A. 가 "利用者의 個別化된 미디어"로서의 도서관을 주장한데서 비롯된다. Mary Duncan Carter and Wallace J. Bone. Building Library Collection. New York, Scarecrow, 1959. p. 26.

한 것이다. 일개 도서관이 보유 하고 있는 평균 정간물을 증수는 143종류, 그것도 연구도서관(Research Libraries)속하는 대학 도서관의 경우이다. 이 중 기증 또는 교환에 의하여 확보된 정간물수를 감안 하면 한 도서관이 구입하고 있는 정간물은 아마도 5·6십중에 불과 할 것이다. 이는 圖書館이 정간물에 대한 자료적 가치의 인식이 극히 저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증거는 연구상황이다. 1971년 한해 동안에 발표된 논문중에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논문이 한 편도 없었다. 비교적 많은 研究論文이 발표된 1971년에 있어서도 이 分野에 관한 論文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의 도서관계가 定期刊物의 問題에 非彈力的인 實例라 하겠다.

우리는 또 다른 事實을 하나 더 追加할 수 있다. 그것은 定期刊物을 管理하기 위한 有效適切한 施設 및 道具가 아직도 개선되지 아니한 점이다. 筆者는 이미 1965년에 「국회도서관보」를 통하여 당시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반시설과 서식이 적합하지 아니함을 지적한 바 있다.⁷⁾ 그러나 7년이 경과한 오늘에도 시설이나 양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때 도서관에 있어서 정기간행물의 관리 상황은 미온적이며 効率化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II. 原因의 糾明

가장 核心的이고 直接的인 原因은 定期刊物에 對한 圖書館學의 通念이다. "우선 資料區分의 通念的인 定義부터 問題가 된다. 定期刊物은 非圖書資料(Non-Book Material)라는 범주에 속한다. 이 非圖書란 圖書(Books)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圖書를 떠나서는 成立될 수 없다. 말하자면 圖書와 其他資料 또는 圖書形態와 圖書形態以外的 資料로 생각할 때에만 成立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圖書館이 主眼을 두어왔던 資料는 圖書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知識의 表現手段은 점차 變化되기 始作하였다. 시청각 자료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 以外에도 Davinson, D.E.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Research paper, Pre-paper, 등 인쇄된 매개물에 있어서도 多樣的인 發展이 거듭되었다.⁸⁾ 圖書館은 이들 자료에 대하여 圖書(Books)에 準하는 方法을 適用시켜 왔다. 그러나 整理 열람에 이르는 과정이 圖書의 그것과는 현격한 差異點이 있으며 그 차이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없는 圖書의 準用方法은 전혀 合當한 것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圖書館은 定期刊物과 그에 屬하는 諸般資料에 대하여 아무런 對策을 세우지 못하였던 것이다.

두번째 原因은 첫번째 지적한 것과 연관되는 것이지만 圖書館學 教育이 그 原因이 된다. 우리는 韓國의 圖書館學 教育에서 定期刊物을 非圖書資料라는 한 카테고리로서 교육되고 있음을 본다.

表 (3)에서 이러한 事實은 實證된다. 調査된 四個 大學 圖書館學科에서의 講義科目은 全部非圖書資料라는 명칭이고 평균 3학점이 배당되어 있다. 이것은 도서관의 분류나 목록이 평균 6학점씩 배정된 것에 비하면 꼭 반이다.

表 (3) 비도서자료 강의내역

학 교	학점	명 칭	학년	필수 선택	자 료
연 세 대 도서관학과	3	비책자자료	3	선택	1971년도요람
중앙 대 도서관학과	3	비도서자료	3	미상	구두확인
이 화 대 도서관학과	3	정기간행물	3	〃	1971년도요람
	3	시청자자료	3	〃	
성 군 관 대 도서관학과	3	비도서자료	3	〃	영문요람

비도서자료의 강의내용은 시청자자료, 정기간행물, 특수자료등 망라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류나 목록의 講義時間에 比하여 너무도 적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教育이 非圖書資料에 對하여 별로 중점을 두지 아니할 때 現場 圖書館이 이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當然한 所致이다.

세번째 原因은 圖書館의 定期刊物에 대한 組織이다. 大部分의 圖書館은 定期刊物을 管理하는 獨立된 單位의 組織體를 形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어느 圖書館이나 重點을 두어온 組織單位는 圖書의 整理作業을 위한 部署였다. 실속 定期刊物을 위한 獨立된 부서를 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圖書整理의 한 補足으로서의 單位로 둔 것이지 完全히 獨自的인 權限과 機能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體制를 固守하여 오는동안 社會와 學界는 圖書形態의 資料로부터 定期刊物 形態의 資料를 더욱 要求하게 되었다. 너무도 빈번히 引用되는 통계이지만 표(4)는 學術研究의 資料源이 定期刊物을 비롯하여 Research Report등 보다 最新의 그리고 보다 Original에 가까운 資料를 원하게 되었다. 이에 圖書館의 機能은 社會나 學術界의 要求에 應할 수 있는 能力의 限界를 느끼게 되었으므로 보는 것

7) 玄圭變, "定期刊物管理에 관한 一註解" 국회도서관보. 2(1, 2) 1965, 2-6. 와 "定期刊物의 分類 및 目錄" 국회도서관보, 2 (7, 8) 1965, 7-8. 참조
8) DAVINSON, D.E. The periodicals collection; Its purpose and uses in libraries. London, Andre Deutsch, 1969. p. 26.

表 (4)

情報源種別	引用文獻數	
	1949	1957
Periodicals	776 (94.6%)	1,241 ¹⁾ (66.3%)
Non Periodicals		
Technical Reports	44 (5.4%)	118 (6.3%)
Technical Memos	—	6 (0.32%)
Monographs	—	3 (0.16%)
Technical Notes	—	1 (0.05%)
Technical Congress	—	—
Conferences	—	58 (3.1%)
Symposium	—	28 (1.5%)
Convention	—	33 (1.8%)
Meeting	—	9 (0.48%)
Contacts	—	3 (0.16%)
Committee	—	2 (0.1%)
Course	—	2 (0.1%)
Congress	—	1 (0.05%)
Miscellaneous	—	—
Dissertation	—	6 (0.32%)
Thesis	—	3 (0.16%)
Patent	—	127 (6.8%)
Book	—	183 (9.8%)
Catalogue	—	1 (0.05%)
Newspaper	—	6 (0.32%)
Compendium	—	1 (0.05%)
Communications	—	—
Private	—	20 (1.07%)
Letter	—	4 (0.21%)
To Be Published	—	12 (0.64%)
	82J	1,868

이다.

이상 세가지는 定期刊行物에 대한 圖書館의 態度를 決定的으로 限定시켜왔던 原因이라 할 수 있겠다.

N. 代案의 提示

위에서 보아온 現況과 原因에 비추어 筆者는 다음의 몇가지 事項이 定期刊行物에 對한 우리의 觀點을 새롭게 하고 現場을 改善하며 나가서 現代가 要求하는 時代的 要請에 順응하는 手段이 된다고 생각한다.

1. 定期刊行物에 對한 通念은 改革되어야 한다.

일찍이 Butl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도서관은 사회적 장치(Social Apparatus)이다. 社會나 國家의 發展은 圖書館의 發展과 같이 있는 것이며 社會開發과 더불어 (with)있는 것이다. 흔히 이 社會的 機能을 理想的인 개념에서 發展시켜 圖書館을 社會教育機關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圖書館은 李承周氏의 論文에서도 指通된 바와 같이 分明히 文化機關이며⁹⁾ 다만 社會教育의 한 機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社會教育機能이라는 通念은 도서관의 進路를 教育으로 물고 간듯 하다. 따라서 社會의 經濟成長과 國家政策, 그리고 社會開發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을 두어 오지 않았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도서관이 本質的으로 文化機關일진대 文化成長을 위한 모든 힘의 根本이 되어야 한다. 경제 성장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분석, 공해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반정보의 종합평가, 한국연구에 대한 중요정보의 제공등 文化成長의 힘의 根源이 되는 行爲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情報의 源泉은 무엇 것인가? 우리는 이미 表 (4)에서 정기간행물의 數的인 重要性을 보아 왔다. 무려 66.3%의 인용문헌이 정기간행물에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적격한 證明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도서의 인용빈도는 9.8%이다. 물론 이 통계는 자연과학 부면에서 나온 수치겠으나 社會學에 있어서도 많은 연구업적이 定期刊行物을 重要文獻으로 看做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定期刊行物에 對한 通念 즉 圖書 다음으로 重要的 資料라는 생각은 적어도 定期刊行物은 圖書못지 않는 또는 圖書와 同一하게 가장 重要的 資料라는 개념으로 改革되어야 한다.

2. 圖書館 教育은 非圖書資料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教育을 지양하여야 한다.

물체로 우리는 韓國의 圖書館 教育의 改善를 要求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광범한 범위

9) 이 승주 “행정상으로 본 도서관” 종로도서관보, 제4호. 1972, p. 43.

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非圖書資料의 강의시간이 目錄이나 分類의 半程度밖에 배당되지 아니한 것은 否當하다. 特히 非圖書라는 하나의 單位科目으로 일괄하여 처리하는 敎育의 구성의는 당연히 止揚되어야 한다. 적어도 시청각 자료와 정기간행물 자료도 大分하여 각기 3학점을 부여 하던가 아니면 더욱 세분하여 시각자료로 청각자료로 정기간행물자료로 특수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講議되어야 한다. 더우기 한 敎授에 依하여 이렇게 많은 分野가 강의되는 것은 이 分野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要因이 되기도 한다.

敎育의 改革이 없는 現場의 改善이 이룩되지 않아 할것임은 너무도 自明하다. 훌륭한 敎育을 받은 많은 젊은 圖書館人이 보다 明哲한 思考를 통한 개선에 앞서지 않는다면 도서관의 장래는 어찌 될 것인가.

3. A & I Service를 제창한다.

세번째로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를 展開할것을 提唱한다. 索引과 抄錄에 依한 奉仕는 일찍부터 圖書館이 생각하여 왔던 진부한 문제이다. 최근 급격히 발전된 색인과 초록의 이론이나 또는 적용은 전적으로 機械에 依存하는 것만은 아니다. 全世界적으로 약 3,500개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A. & I. Service는 550개소가 미국에 있고 대부분이 전통적인 매뉴얼 방식을 活用화(Utilize)시킨 방법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고 Bourne은 지적하고 있다.¹⁰⁾ 따라서 도서관학이 提示하여 왔던 전통적인 방식의 活用화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는 색인과 초록봉사의 기초가 된다 하겠다.

우리 圖書館界는 몇몇 도서관의 꾸준한 노력으로 몇개의 索引誌가 發行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대 도서관, 부산시립도서관, 서울대학교도서관 등이다. 이들 索引은 全部 定期刊行物 記事索引이다. 그런데 이들 索引이 과연 有效適切한 것일까.

색인은 크게 一般索引과 主題索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一般索引은 國會圖書館의 정간물 기사색인이 그 예이고 주제색인은 교육학관계는저색인이 그 예이다.

筆者의 私見으로는 一般索引이 有效하였던 時代는 지나간것 같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社會는 더욱더 細分된 그리고 特定된 分野의 索引을 要求한다. 예컨대 외국학술잡지 색인, 도서관 소장기사색인과 같은 目的과 目標을 잃은 색인 작업은 時間의 浪費일 따름이다. 또한 Cumutation system이 고려되지 않아 무엇때문에 索引을 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이다. 만일

論文名이나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면 Contents Sheet Service가 오히려 適當할 것이다. 포괄성 보다는 전문성을 지향하였다더라면 그리고 하나라도 한 分野에서 確實히 索引되어 왔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각도서관의 색인 업무는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한번 改定性 하여야 될것 같다.

한편 抄錄業務는 쏘려 不在이다. 文獻의 洪水 또는 情報의 범람이란 用語만이 重要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사태에 對應하느냐 하는 것이다. 抄錄은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여 대결하는 한 방법이다. 圖書館은 이 問題를 방관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定期刊行物에 收錄된 論文單位의 索引作業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全體적으로 組織的이고 專門的이어야 한다. 도서(Books)가 목록(Catalogue)에 의하여 검색되듯 정기간행물(Periodicals)는 索引(Index)에 依하여 검색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둔다.¹¹⁾

4. 정간물의 관리를 위한 독립단위를 권고한다.

네번째로 도서관 업무단위의 설정에 있어서 定期刊行物 管理單位를 獨立시켜야 한다. 대체로 도서관의 조직은 정리위주의 체제로 형성되어 있다. 사서과 또는 정리계를 도서관의 중심이 되는 부서로서 간주하는 것이 우리의 도서관 조직의 통례이다. 이 통례는 정간물의 관리작업과정을 도서의 정리작업속의 하나로 간주한다. 대규모의 도서관이나 소 도서관이나 막론하고 定期刊行物을 完全한 獨立된 한 作業過程으로 獨立시킨 곳은 아직은 없는듯하다. 選擇과 購入, 閱覽과 整理, 書庫의 管理에 까지 完全한 獨立된 한 作業 Process로 간주되어야 하는 定期刊行物管理는 흔히 選擇과 購入은 收書擔當部署에서 整理는 司書課에서 열람은 열람담당 부서에서 各各 分離되어 管理된다.

그러나 定期刊行物은 完全히 獨立된 한 系列의 組織單位가 아니고선 効果的인 管理로 期待할 수 없다. 規模가 적은 圖書館일지라도 始初부터 定期刊行物의 管理組織은 獨立된 作業單位로 區分하여 놓아야 한다.

5. 定期刊行物의 管理方法을 效率化 하여야 한다.

다섯번째로 定期刊行物의 管理方法의 改善을 促求한다. 受入業務의 效率的인 方法의 研究, 열람업무의 効果적인 管理, 定期刊行物 特性에 適合한 分類, 目錄의 研究 定期刊行物을 中心으로한 復寫業務 및 奉仕方法의 多樣化等 現場業務의 諸方法에 대한 改善이 이루어 져야 한다.

以上の 다섯가지 代案은 原則的인 側面에서 大分하여 提示한 것으로서 細部面의 例示가 省略되어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어떻게」 改善할 것인가하는 물음에

10) BROUNE, Charles P. ibid p.2.

11) DAVINSON, D.E. ibid. p. 29.

大體의인 答辯은 되리라 믿는다.

V. 結 論

圖書館과 社會의 變動이라는 本質的인 問題에서 始作된 이 글의 最終의 結論은 定期刊行物에 對한 圖書館의 對應態度가 새로운 側面에서 接近되지 않은 限度 서관의 시대적요청에 대한 對應力은 弱化될 것임이 分明하며 앞으로 올 새로운 社會構造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위치를 견지하지는 못한다는 조금은 과장된 결론에 도달된듯 하다.

그러나 分明히 知識의 情報源은 圖書라는 매개체에 서 各種 資料라는 知識의 表現手段의 發展된 樣態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多樣한 源資料에 對한 적절하고도 희망찬 도서관의 對應力이아 말로 變動과 成長의 社會에 대처하는 初步的인 態勢가 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 最初의 試圖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

여기 提示한 對策의 提案들은 原則的인 面만이 개괄적으로 表現되어 있어 實際 適用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 같다. 말하자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가이드 라인의 제시가 없었던 점을 시인한다는 것이다. 例컨대 정간물의 열람은 어떤 方式으로 改善되어야 한다던가 색인과 초록은 어떤 方式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던가 하는 實證的인 권고 또는 예시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하나씩 검토되어야 할 研究의 課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급된 모든 問題가 定期刊行物에 對한 지나칠 程度의 沒入으로 因하여 論理上의 비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적어도 定期刊行物의 重要性은 아무리 強調하여도 지나친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筆者는 하고 있다. 끝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종사하고 치사의 한사람으로서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를 거하지 못하고 단시일내에 작성된 이 粹文이 도서관계 여러 人의 累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7면에서 계속

의 生活과 政治性을 論하고 있다. 부록에는 中共혁명의 歷史의 背景과, 中공혁명 的 實態, 中共의 미래상에 대한 도크 바네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K912. 079 D95B(079)

981 아시아 지리

崔 喆 嶺東民俗志 通文館 1월 358p 21cm 1,500원
강릉을 중심으로 南으로는 玉溪와 望 祥, 北으로는 注文津邑을 거쳐 仁邱, 西로는 臨溪와 五臺山 月精 거리에 이르는 文化권의 흔적과 變遷되어온 과정을 말하고 있다. 내용은 강릉의 沿革, 社會구조,

강릉의 部落祭, 산업기술, 세시풍속의 식주, 민속, 예술, 오락, 구비전승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K981.14 D915A(14)

<23면에서 계속>

李 瑄 根(嶺南大學校 總長)

9. 主題 및 發表者

1) 공공도서관분과

가) 情報化 社會에 있어서의 國家發展을 위한 公共圖書館의 政策

이 승 주(국립중앙도서관)

나) 圖書館의 立場에서 본 讀者의 읽을 權利

김 영 조(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

2) 대학도서관분과

가) 國家發展을 위한 대학교육 개혁과 도서관의 역할

한 상 완(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나) 大學圖書館 資料 처리의 機械化 問題

최 성 진(서라벌예술대학 도서관장)

3) 학교도서관분과

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개편에 따른 도서관 교육문제

조 재 후(중앙시청각교육연구원)

나) 새로운 학교도서관 개념으로서의 미디어 센터

최 성 락(서울교육대학)

4) 특수도서관분과

가) 전국규모의 특수도서관 협력문제

백 낙 진(한국과학원 도서관)

나) 특수도서관에 있어서 정보검색의 현황과 문제점

박 계 홍(한국과학기술연구소 도서관실)

10. 분과별 종합토의 진행 및 보고

1) 공공도서관 분과 김 영 조

2) 대학도서관 분과 최 성 진

3) 학교도서관 분과 조 재 후

4) 특수도서관 분과 박 계 홍

11. 유의사항

주제발표는 1인당 1시간 이내로 하고 발표자는 발표 내용을 원고지(200자) 10매 이내로 요약하여 8월20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